

FEISEAP(Federation of Engineering Institutes of Soth East Asia the Pacific)

9th General Assembly Beijing 27-29 April '96

東南亞 太平洋 地域 工學 聯合會 第 9次 總會 韓國代表로 參席

90.4.27~29 於中國北京

許 墳

중국 FEISEAP총회 참석

△FEISEAP 9차 총회 참석사

(맨 앞줄 좌측부터 허 진(한국기술사회 부회장), FEISEAP 초대 회장 부인(태국), R. I mair, P.Eng(호주), Tu Shan-Cheng, P.Eng(중국), Sun Dayong, P.Eng(중국, 과학기술협회 부주석), 西野文雄氏(일본, FEISEAP 차기 회장), Ir James Blaeke, P.Eng(홍콩), 肥後滿郎氏(일본), 우측 뒤로 두 번째 김주항(한국기술사회 상임이사)

머리말

1977年 泰國에서 創設된 本聯合會는 第 1次 總會를 시작으로 지난 '8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誘致 第 4次 總會(成樂正 會長 許 墳 執行委員長)을 盛大히 마찬바 있고 그 후 香港에서 開催된 第 5次 總會에서는 成會長과 筆者가 韓國代表로 參席 한바있으나 그 後 今일에 이르기까지 近10

年間 科技總이 主管으로 別다른 誠意를 보지 못하고 있었으나 今番 모처럼 만에 第 9次 總會에 얼굴을 보인 우리 代表를 보고 各國代表들이 열렬한 聲援을 보여주어 기쁨 마음 금할길 없으며,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을 떨굴 수가 없었다. 실인즉 本聯合會 總會는 地域間의 Engineering 事業關係를 다루는 關係로 우리 技術社會가 正會員으로서 主管해야 된다는 衆論에 따라 昨年 科技總

成樂正 會長의 努力으로 그 正會員 資格이 우리 技術社會에 移管되어 금년초에 절차관계를 1994-1996 집행국인 中國 事務局에 連絡 한바 今番 9次 總會에서 회원권 移轉을 承認을 받아야하니 代表를 派遣해 달라는 要請에 따라 成樂正 會長이 科技總 會長 자격으로, 이어서 總會는 筆者와 김주환 理事가 參席하게 된 것이다. 總會와 各 Work Shop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總會

2-1 이결권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韓國技術社會로 正會員을 이양한다는 案件이 滿場一致로 舉手 可決 되어있다. 議長 要請에 따라 筆者가 韓國技術社會를 代表해서 人事 『會員國 代表 여러분의 贊成해주신거에 대해서 眞心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쁨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地域間의 技術 交流는 물론 相互 技術開發에 힘쓸것을 約束드리며 FELSEAP 초창기 聯合會를 다할 覺悟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맞이 않습니다.』

2-2 공로패 수여

FEISEAP 初代 會長 故 Aroom Sorathesn 교수 (EIT)에 대한 公로패 受與를 婦人이 대신해 수상하였다.

2-3 會長團 選出

1995年 11月 23-24日 香港에서 執行 委員會에서 推薦된 會長團을 1996-1998 새會長團을 滿場一致로 選出 하였다.

會長 西野文雄 교수 (日本)

事務總長 Higo Misuro (日本 工學聯合會 事務總長)

副會長 MR. Ir James Blake (香港)

執行委員 (Exccutive Members)

Ir Professor Abang Abdullah abang Ali (Mal)

Dr. Graham Atkim's (Papua N, Guinca)

2-4 1998年 10次 總會는 日本 東京에서 開催키로 決議

8次 總會에 決議에 따라 1995年度 150% 1996年度 200% 引上 韓國(KOFST)은 '1995年度 分 \$36,000은 未納으로 되어있다.

3. 各分科 委員會 發表(Work Shops)

Work Shops은 3個 分野로 나누어서 2日間 發表 되었다. Technology Tranfer/Regional Centres, Education and Training Committe 및 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 中 筆者는 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 에 參席하여 여러나라의 發表文과 Engineering 실태를 파악 하는대로 좋은 도움이 되었다.

그간 韓國技術社會가 發足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日本, 호주, 香港, Malaysia, Indonesia, Papus New Guinea, New Zealand 등이며 其他 나라들은 工學會(Instiutum of Engineers)가 技術士會 업무를 대신 총괄하고 있는 실정이다. 中國의 예를 들면 토목설계를 건설부의 건설부서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까닭에, 즉 다시 말하자면 60년초 우리 技術士 제도가 생기기전과 같은 것으로 보면 틀림없다. 이것을 고치려면 최소 4~5년 정도가 걸어야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먼저 國際間의 協力에 가장 積極的인 活動을 해온 호주 代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英聯邦 國은 大部分 英國의 Chartered Engineer System을 採擇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美·日 같음)와 같이 試驗을 보고 나라에서 국가 資格證

받고 그리고 나라에 登錄하는 制度와는 달리 試驗도 없고 資格證도 없고 登錄도 없는 自由制度인 것이다. 그렇다고 試驗이 없으니 實力이 없고 Professional Practice Report를 工學會(IEA)에 제출하면 Report 심사를 거쳐 한 시간 정도의 面接試驗을 보게 된다. 이에 合格하면 비로써 Chartered Professional Engineer로서 認定을 받게 된다. 물론 大部分의 경우 工學會(IEA) 會員에 加入하게 되는데 이때 Coperative Member로 呼稱하며 平會員과 區分이 된다. 會員加入은 自由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 이로부터 또다시 5年の 實務經歷(그중 3年間은 Senior 責任者로서의 經歷을 要求한다)을 가진 者가 會員間的 추천에 의거 工學會內 Commettie Council에서 심사 後 參與 Fellow가 되며 이는 독자적 設計 사무소를 運營할 수 있는 것이다. 정년이 될 때까지 오랜 經綸이 쌓이게 되면 技術者로의 최고의 영예인 名譽會員 Honorable Member 또는 Eminent Member로서 元老 待遇를 받게 된다. 이 모든 것이 他薦에 의해서 審査委員會에 제출하고 公正한 심사를 거쳐 남이 떠받치고 인정하는 영광의 稱號이다. 『나 한테 상을 주시오, 영광의 稱號를 나에게 주시오.』하며 자칭하는 우리 風俗을 다시 한 번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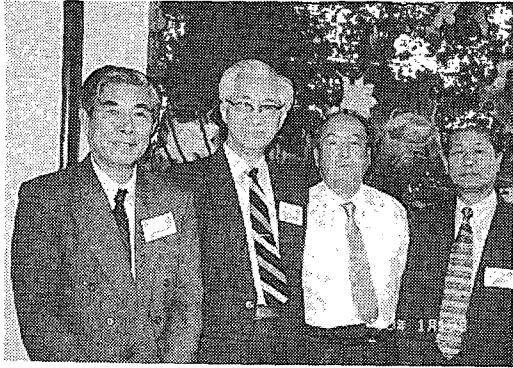
'94年 1月 1日을 기하여 발효되었던 America, Canada, Mexico 같은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에 따라 登錄技術士 資格(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과 Consulting 업무에 관해서는 1996年 1月 1日부터 상호자격과 업무를 인정하는 Engineering Service 協議(Temporary Licensing Procedures)를 한다는 勸告 內容이 하나의 國際 Rule로서 제공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建設 Consultant를 비롯한 製造物 責任法 등 모든 部署에 관련되는 것으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잡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은 技術士 個人이 무시되어 있는 우리사회의 통념이 個人이 直接 사회와 부딪쳐 일하는 美의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設計 業務를 直接 담당하는 技術士의 設計 責任 묻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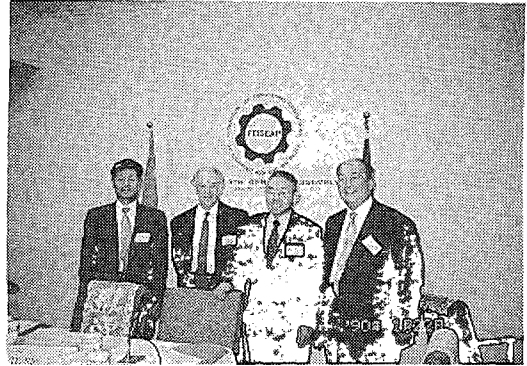
크게는 Washintong Code에 따라 美, 英, 南阿共和國, 香港, 호주, Newzealand, Ireland 등은 이미 大學卒業 學位를 同一하게 인정 한다는 合意를 보았으며 이것이 기초가 되어 앞으로 技術士自格 相互 認定 問題로 한 걸음 接近한 것으로 생각된다. 적게는 亞細亞에서도 호주가 중심이 되어 Singapore, Malaysia, 泰國 등은 이미 상기와 같이 學位를 同一하게 인정한다는데 원칙적으로 合意하고 계속해서 상호간의 資格 認定 問題에 대해서 國際會議를 통해서 檢討하고 있는 實情이다.

「註」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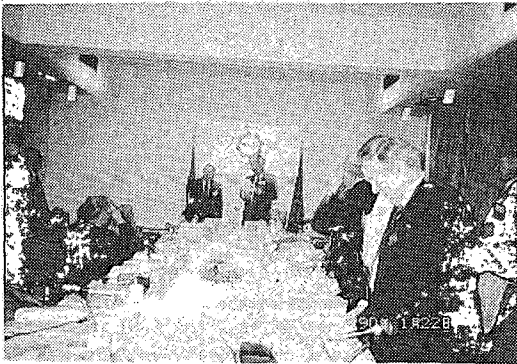
- 맨앞줄 좌측부터 필자
- 세번째 호주대표
- 네번째 Feiseap회장
- 다섯번째 중국과기총 부주석
- 여섯번째 일본대표(신회장)
- 일곱번째 홍콩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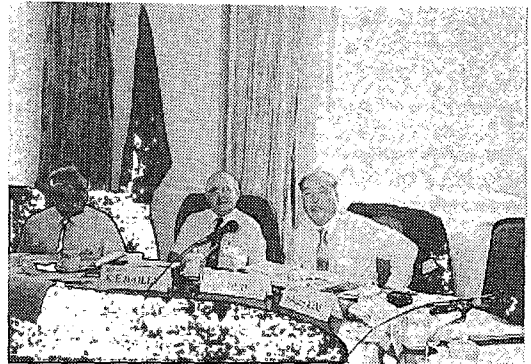
Cast 朱비서장 Tu교수 筆者 金理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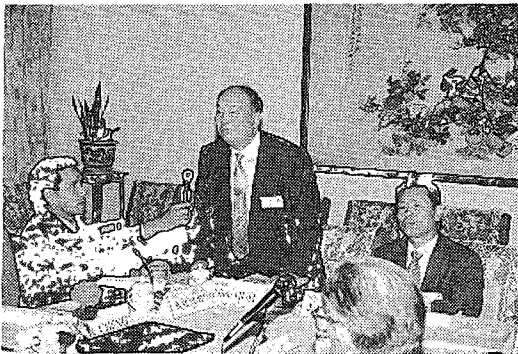
右에서 筆者 西野會長 NZL代表 金理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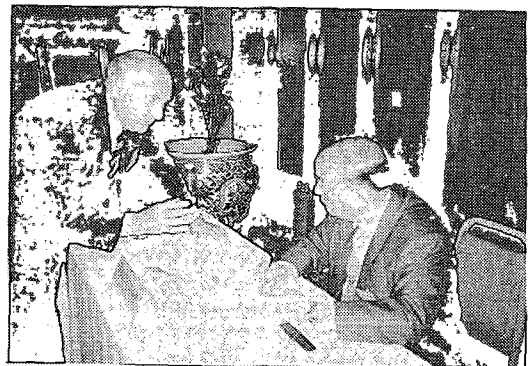
本會長 Tu교수가 새로 선출된 會長을 소개하고 있다.



右에서 호州代表 NZL 代表



韓國技術士會가 正會員으로 可決된대 대하여 人事하는 허박사



MR Bailey가 會議에 앞서 協調를 求하고 있다.